十二支化氣와 四時陰陽消長의 관계에 대한 연구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對十二支化氣與四時陰陽消長關係的研究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十二支化氣內容和地支五行屬性不同. 一般用正化對化作用, 說明其不同的關係. 但是內容很難, 所以很多人不能理解. 每個十二支的意義, 可以通過類推12個月的陰陽消長來理解. 根據『素問·陰陽應象大論』'陽生陰長, 陽殺陰藏', 春是陽中之陽, 夏是陽中之陰, 秋是陰中之陽, 冬是陰中之陰. 如果將一陽→二陽→三陽→一陰→二陰→三陰的陰陽消長過程適用到四時陰陽, 可推算出以下關係: 寅(1月)-少陽相火, 卯(2月)-陽明燥金, 辰(3月)-太陽寒水, 巳(4月)- 厥陰風木, 午(5月)-少陰君火, 未(6月)-太陰濕土, 申(7月)-少陽相火, 酉(8月)-陽明燥金, 戌(9月)-太陽寒水, 亥(10月)-厥陰風木, 子(11月)-少陰君火, 丑(12月)-太陰濕土. 這樣的關係與十二支化氣的內容完全一致.

關鍵詞: 四時, 陰陽消長, 十二支化氣, 陽生陰長陽殺陰藏.

Ⅰ. 緖 論

十二支化氣는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을 말한다. 이는 『素問·天元紀大論篇第六十六』에 나오는 것으로[1], 子午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之氣가 되고, 丑未年에는 太陰濕土가 司天之氣가 되고, 寅申年에는 少陽相火가 司天之氣가 되고, 卯酉年에는 陽明燥金이 司天之氣가 되고, 辰戌年에는 太陽寒水가 司天之氣가 되고, 巳亥年에는 厥陰風木이 司天之氣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十二支化氣는 十二支의 五行配屬과 다르다. 十二支 五行配屬은 寅卯가 木에 속하고, 巳午가 火에 속하고, 辰戌丑未가 土에 속하고, 申卯가 金에 속하고, 亥子가 水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일찍이 新校正 『玄珠密語』 등에서는 正化 對化로 설명하고 있다.[2]

그 이후 지금까지 十二支化氣에 대하여는 正化對化로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3][4] 그러나 이 正化 對化에 대한 내용은 일견 일

1)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下卷 857쪽.

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下卷 859쪽.

3) 윤창렬 박찬국, 干支와 運氣에 관한 연구, 경희한의대논문집, 제 10권, 1887년 12월, 311-312쪽.

4) 權依經, 권영규 김은하 공역, 오운육기학 해설, 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正化 對化에 대하여는 다음의 3가지 설명방식이 있다.

첫째, 둘 중의 하나를 따르는 경우이다. 가령 子午少陰君火에서 午는 5월로 五行屬性이 火인데, 少陰君火와 같으므로 正化가 되며, 子는 11월로 그 반대이므로 對化가 된다. 卯酉陽明燥金도 이러한 예를 따르고, 丑未太陰濕土로 이러한 설명방식을 따른다.

둘째, 둘 중의 하나가 生하는 것을 따르는 경우이다. 가령 寅申少陽相火에서 寅은 3월로 木이고, 申은 7월로 金에 속하는데, 木이 火를 生하므로, 寅은 正化이고 申은 對化이다. 巳亥厥陰風木도 이러한 예를 따른다.

셋째, 辰戌太陽寒水의 경우는 위의 예를 따르지 않고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辰戌이 모두 오행 속성은 土인데, 戌이 9월이고, 9월은 가을이며, 가을이 겨울을 生하므로 戌은 正化가 되고 辰은 對化가 된다.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위의 설명 모두 이미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의 관계를 설정하여 놓고, 正化인가 對化인가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왜 子年 午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之氣가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될 수 없다.

둘째, 둘 중의 하나를 따르거나 하나가 生하는 것을 따르거나 왜 하필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즉 子午少陰君火인 경우 왜 子年을 正化로 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寅年과 申年인 경우 왜 7월인 申이 生하는 寒水가 司天之氣가 못되고 1월인 寅이 生하는 少陽相火가 司天之氣가 되는가하는 점이다.

셋째, 왜 어떤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生하는 것을 따르며, 어떤 경우에는 五行屬性과 관계없이 계절적 특성이 生하는 것을 따르는가하는 점이다. 즉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다.

물론 한의학은 논리적인 언어에 의지하기보다는 직관적인 관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연현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正化 對化에 의한 설명방식 이외의 다른 좀더 쉽고 합리적인 설명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十二支化氣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本 論

十二支는 月을 표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성질도 月의 성질을 유추하여 알아낸다. 그러므로 十二支를 볼 때에는 항상 12월로 구성된 一年의 陰陽消長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十二支를 四時 陰陽消長으로 관찰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봄과 여름은 陽에 배속하고 가을과 겨울은 陰에 배속한다. 이는 기운이 발산 번성하게 되는 봄 여름은 陽의 속성이 있다고 본 것이며, 수렴 잠장하게 되는 가을 겨울은 陰의 속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자연에서의 변화를 형태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봄에는 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므로, 봄은 陽 중에서 작은 陽인 少陽에 해당하며, 여름은 陽 중에서 큰 陽인 太陽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게 되므로, 가을은 陰 중에서 작은 陰인 少陰이 되고, 겨울은 陰 중에서 큰 陰인 太陰이 된다.

그러므로 봄에 해당하는 寅卯辰(1월 2월 3월)은 少陽이 되고, 여름에 해당하는 巳午未(4월 5월 6월)는 太陽이 되며, 가을에 해당하는 申酉戌(7월 8월 9월)은 少陰이 되고, 겨울에 해당하는 亥子丑

울. 법인문화사. 1996. 85-9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0월 11월 12월)은 太陰에 해당한다.

그런데, 十二支를 하루의 시간에도 사용하므로 그 시간대의 陰陽屬性을 살펴보면, 대개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陽, 집에 있는 시간을 陰이라고 한다면, 출근 시간인 9시에서 퇴근시간인 19시까지 즉 巳時에서 戌時까지는 陽이라고 할 수 있고, 집에 있는 21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즉 亥時에서 辰時까지는 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內經』에서는 五藏의 陰陽을 다음과 같이 配屬하고 있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心肺는 陽이 되고, 아래에 있는 肝脾腎은 陰이 되며, 위에 있는 心肺에서 心은 陽 중의 太陽이 되고, 肺는 陽 중의 少陰이 되며, 아래에 있는 肝脾腎 중에서 肝은 陰 중의 少陽이 되고, 腎은 陰 중의 太陰이 되고, 脾는 陰 중의 至陰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靈樞·九鍼十二原』 및 「陰陽繫日月」에 나와 있다.[5][6]

다만 『素問』에서는 王冰이 經絡學說을 좇아 太陰을 肺와, 少陰을 腎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新校正에서 『甲乙經』 및 『太素』에 근거하여 이미 자세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7]

이러한 陰陽配屬을 종합하여 보면, 봄은 陰에 있으면서 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직 본격적인 陽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陰中之少陽이 되며, 여름은 陽의 위치에서 본격적인 陽의 사업을 하므로 陽中之太陽이 된다. 그리고 가을은 陽의 위치에 있으면서 陰을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陽中之少陰이 되는 것이며, 겨울은 陰의 위치에서 본격적인 陰의 사업을 하므로, 陰中之太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陽을 少陽 太陽, 陰을 少陰 太陰으로 나눌 수 있지만, 陽을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 陽中의 陰과 陽中의 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陰도 陰中의 陽과 陰中의 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봄은 陽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이고, 가을은 陰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이며, 여름과 겨울은 구체적인 陰陽의 형체가 완전히 드러난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를 陽이라 본다면 그 일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기는 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봄 여름은 陽이지만 陽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봄은 陽中之陽이며, 실제로 陽의 사업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여름은 陽中之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과 겨울은 陰이지만 陰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을은 陰中之陽이며, 실제로 陰의 사업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겨울은 陰中之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형체적인 면을 갖고 살펴보았을 때에는 봄이 陰中之少陽, 여름이 陽中之太陽, 가을이 陽中之少陰, 겨울이 陰中之太陰이 되지만,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陽적인 측면과 실제로 陰陽의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陰적인 측면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는 봄이 陽中之陽, 여름이 陽中之陰, 가을이 陰中之陽, 겨울이 陰中之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生陰長, 陽殺陰藏'으로 표현하였으니[8], 사계절을 크게 陰陽으로 구분하고, 陰陽을 다시 陰陽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봄은 陽中之陽으로 寅卯辰이 해당되고, 여름은 陽中之陰으로 巳午未가 해당되고, 가을은 陰中之陽으로 申酉戌이 해당되고, 겨울은 陰中之陰으로 亥子丑이 해당된다.

이러한 陰陽消長의 단계적 추진과정을 그대로 三陰三陽의 一陽→二陽→三陽, 一陰→二陰→三陰의 순서로 대입하여 보면,

봄은 寅이 一陽, 卯가 二陽, 辰이 三陽이 되며, 여름은 巳가 一陰, 午가 二陰, 未가 三陰이 되며, 가을은 申이 一陽, 酉가 二陽, 戌이 三陽이 되며,

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上卷 29쪽.
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下卷 4쪽.
7)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上冊, 148-150쪽.
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上卷 63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겨울은 亥가 一陰, 子가 二陰, 丑이 三陰이 된다.

그런데 一陽은 少陽, 二陽은 陽明, 三陽은 太陽, 一陰은 厥陰, 二陰은 少陰, 三陰은 太陰이므로, 이를 다시 十二支로 표시하여 보면 寅은 一陽 즉 少陽相火가 해당되고, 卯는 二陽 즉 陽明燥金이 해당되고, 辰은 三陽 즉 太陽이 해당되고, 巳는 一陰 즉 厥陰이 해당되고, 午는 二陰 즉 少陰이 해당되고, 未는 즉 太陰이 해당되고, 申은 一陽 즉 少陽이 해당되고, 酉는 二陽 즉 陽明이 해당되고, 戌은 三陽 즉 太陽이 해당되고, 亥는 一陰 즉 厥陰이 해당되고, 子는 二陰 즉 少陰이 해당되고, 丑은 三陰 즉 太陰이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子午는 少陰으로 같고, 丑未는 太陰으로 같으며, 寅申은 少陽으로 같고, 卯酉는 陽明으로 같고, 辰戌은 太陽으로 같고, 巳亥는 厥陰으로 같다. 이를 다시 標인 三陰三陽과 本인 六氣를 함께 표시하면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이 된다.

이러한 四時 陰陽消長의 추진 과정을 三陰三陽의 순서대로 대입한 것은 十二支化氣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十二支化氣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四時 陰陽消長의 추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十二支化氣에서는 사실 地支의 五行屬性보다 陰陽消長의 추진과정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五行屬性을 중심으로 한 正化 對化작용은 이러한 三陰三陽의 消長관계를 다시 五行屬性으로 이해하였을 때, 十二支化氣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論

十二支化氣의 내용은 地支의 五行屬性과 다르고, 그 다른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통 正化對化작용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난해하여 쉽게 이해될 수 없는데, 이를 陰陽 四時의 消長관계로 설명하면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陰陽으로 나누면 봄 여름은 陽이 되고 가을 겨울은 陰이 되는데, 이를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陽生陰長, 陽殺陰藏'에 근거하여 다시 陰陽으로 나누면 봄은 陽中之陽, 여름은 陽中之陰, 가을은 陰中之陽, 겨울은 陰中之陰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陽의 과정은 一陽→二陽→三陽의 순서로, 陰의 과정은 一陰→二陰→三陰의 순으로 추진되므로, 四時의 十二支에 그대로 대입하여 보면, 十二支化氣의 내용인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 巳亥厥陰風木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十二支化氣의 설명에서는 五行屬性에 의한 正化對化작용보다는 三陰三陽의 四時消長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五行屬性은 그 결과를 正化對化작용으로 부차적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 權依經, 권영규 김은하 공역,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3.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4. 윤창렬 박찬국, 干支와 運氣에 관한 연구, 경희한의대논문집, 제 10권, 1887년 12월.
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